불자 세상보기

맹 난 자
수필가

'어긋난 부부'의 과보

며칠 전에 읽은 신문 기사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것은 나 역시 이 문제에서 한때 자유스러울 수 없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학개론> 어느 페이지에선가 남편의 외도는 곧바로 아내의 '단명보(短命報)'로 이어진다는 것을 읽고는 왠지 가슴이 두방망이 치던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인지 어머니는 오십도 못 다 채우고 어느 여름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얼마전 '조강지처 버린 죄로 뒤바뀐 인생'이란 제목의 기사는 그래서인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죄 중에 가족을 져버리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있을까? 모든 가족사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신문 기사의 A씨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그는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리고 새로 살림을 차렸다. 그 후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함께 살던 여자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다.

20년 만에 그는 이혼한 아내와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그의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땅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의 재산가가 되어 있었다. 아내가 혼자 힘으로 키운 두 자녀도 그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노숙자를 방불케 하는 A씨는 이혼할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땅을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이다.

"20년 전 이혼할 때 땅을 넘겨준 것은 제 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넘겨준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저 사람(부인)은 그 땅 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는데 이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런 몰염치한 투정을 지켜본 아내와 자식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나는 피해자측의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다. 재판 결과는 뻔한 것이었으나 부장판사는 뻔한 결과를 그대로 선고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때 인연을 맺었던 부부인데…. 무엇보다 싫든 좋든 방청석에 앉아 있는 두 자녀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부인께서 4000만 원 정도 주면 어떨까요. 다만 한 번에 목돈을 주면 원고가 다시 바람을 피워 탕진할지 모르니까 2년 동안 네 번으로 나눠서 1000만 원씩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장판사는 한참 동안 부인을 설득했고, 마침내 그녀도 그 부장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강지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때우며 함께 고생하던 아내는 예부터 특별한 죄가 없는 한 함부로 내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은 아닌가. 숙연(宿緣)이 어긋난 부부의 과보를 보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후 팔십은 주나라 문왕의 왕사로서 보람 있는 생애를 보냈으나 전 팔십은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던 강태공. 남편을 버리고 개가한 그의 아내는 날품팔이로 취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왕사가 된 강태공의 마차와 마주쳤다.

그녀는 길을 막고 꿇어앉아서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 강태공은 옆에 있던 물병의 물을 쏟아 보인 뒤 '이와 같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나 몸에 지닌 쇠붙이를 떼어 그녀에게 모두 주고 가던 길을 유유히 떠났다고 한다.

좋고 나쁜 것은 모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누구도 인과(因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교훈을 나는 여기에서 읽는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특정분야의 포교에 자격증을 지닌 전문적인 포교사가 나서서 불법을 바탕으로 한 전문포교가 이룩되는 계기가 마련될 듯 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선지도사 등의 특정 인력을 일정한 제도 아래서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자격검증을 해 전문포교사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전문적인 영역에 일반적인 포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위에 열거한 영역 등에서는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배치가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기에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기존의 포교사 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완비된 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대되는 포교전문가 시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교사 교육은 기본으로 되고 그 위에 전문적 능력을 부가한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어 포교사 전체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질 높은 인재의 양성은 선발의 초기부터 어떠한 수준의 인재들이 모여드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은 기존의 포교사들에 대한 정책부터 다시 점검하여 포교사들의 활동영역과 권위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배출될 전문포교사들의 활동무대를 종단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마련하고, 그들이 배출될 시점에 맞춘 인재의 수급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이러한 영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그들이 새로운 역량을 지니고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일 또한 시급하다.

불심과 능력을 지닌 인재는 많다. 그들이 자신의 생을 걸고 뛰어들만하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무대를 만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의 전문포교사 양성계획이 조계종 종단의 인재불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최초의 여성총리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중국의 북경만보(北京晩報)가 4월 20일 TV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에 빗대 한명숙 총리를 '한국 정계의 대장금'이라고 칭찬했다. 신문은 드라마에서 총명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굴곡진 운명을 강인한 의지로 극복한 주인공 대장금과 한 총리의 인생 역정이 많이 닮았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계의 대장금이라는 말을 들으며 한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한명숙 총리는 서열대로 줄지어 선 채 진행되던 취임식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앉아서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첫 발을 떼었다.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함으로써 한국에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어때야 할까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이제 우바이의 역할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 지도자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부처님은 "지도자는 불과 같이 만민을 위해 근심을 없애 주며 물과 같이 사방을 윤택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셨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돌보겠다"고 선언한 한명숙 총리가 이 같은 부처님말씀대로만 한다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바새계경>에서는 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극진한 마음, 게으르지 않음, 일을 하면 끝까지 해 마침, 빨리 해서 때를 잃지 않음, 항상 손님을 위하여 보살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말을 부드럽고 순하게 함,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부드러운 말로 가르침, 가르침을 받아들임, 능히 나쁜 일을 덮어줌 등은 여성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한명숙 총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새기기를 바란다.

■강지연(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느낌의 환상과 스트레스의 독(毒)

하루 30분이라도 명상하라

부처님은 중생이 갖는 3가지 독(毒)을 규정하셨는데 그것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고 정의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을 취하려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며, 불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닥칠 때 일어나는 느낌, 그것을 밀쳐내고 공격하려하는 마음을 진심이라 하고,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는 느낌은 자기 안목의 잣대대로 판단해 버리는 마음을 치심, 즉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염수경(念受經)>에서는 느낌의 실체를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염수경>의 설파는 앞서 말한 탐진치 삼독에서 파생된 느낌이 중독된 사람들이(衆生) 취하고자 하는 갈증이 조건이 되어 발생하는 결과가 결국 태어남과 늙음과 병듬과 죽음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홉킨슨대학과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수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연구한 인간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바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노화 가속화의 주원인은 스트레스가 거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이다. 스트레스하면 우리는 너무나 간단히 지나칠 수 있는 말일수도 있다. 필자는 5년 전쯤에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나역시 불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가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해오던터라 매우 중요한 발견의 연구결과라고 탄성을 지른바 있다.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나, 멜라토닌 등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는 신체기능에 활성화 즉 세포에 활력을 주어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세포를 억제 내지는 소멸시키는 작용을 도와준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염수경>의 한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날 수행승들은 부처님을 뵈러 왔다. 그들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존자시여 느낌(愛)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의 일어남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일어남에로 이끄는 길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그침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느낌에는 이 세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이다. 이들을 느낌이라 한다. 촉(觸)이 일어남으로써 느낌(愛)이 일어난다. 갈애(愛)가 곧 느낌의 일어남에로 이끄는 길이니라 촉(觸)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느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나니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기 마련이니 이것이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다. 느낌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남이다.

느낌의 환상을 따라 허겁지겁 달려가는 수없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걷고 또 걸어보지만 결코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곳 어느 선지식의 말씀이었던가! 하루가 24시간인데 9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4시간 놀고 그래도 3시간이 남으면 남는 이 시간을 1시간 그것도 어려우면 단 30분이라도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들숨 하는 숨을 날숨하지 못하면 내 생명은 끝장이다. 날숨 하는 숨을 들숨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끝나버릴 나의 인생이 아니던가? 이것은 인간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좌표요. 보배요. 참 행복에 이르는 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이리라.

황경환(초기불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현대' 만평 심 민 섭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醫通(의통)·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4. 28 (금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예비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빙의·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